

타운뉴스 칼럼

겨울 발디(Baldy)

인창해
타운뉴스 발행인



남가주 일원에 겨울 폭풍이 계속되고 있다. 사나울
째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.

이맘때면 어김없이 하얗게 눈 덮인 마운틴 발디(Mt.
Baldy 해발 1만64피트·3,068미터)가 유혹한다. 특
히 Brookhurst 길로 북상하다가 5번 프리웨이 교차
지점에서 보는 마운틴 발디는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
불러일으킨다. 발디의 공식 명칭은 샌안토니오(San
Antonio) 마운틴이지만 도시에서는 정상에 바위덩어
리만 보여 마운틴 발디(대머리 산)라는 애칭으로 더
유명하다. 샌개브리얼 산맥의 LA 카운티와 샌버나디
노 카운티 경계에 있으며, 오렌지카운티와 LA에서 가
깝기 때문에 남가주 한인들이 즐겨 찾는 산이다.

지난 연말(12/29), 폭풍우 속에 마운틴 발디를 등산
하던 한인이 추락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. 산행 도중
한 사람이 추락했고, 실종 1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
되었다. 당시 마운틴 발디는 폭풍으로 인해 구조를 위
한 수색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상태가 매우
좋지 않았고, 이로 인해 구조 활동이 늦어질 수밖에
없었다고 한다.

마운틴 발디는 필자도 2001년부터 펜데믹 이전까지
자주 찾았던 산이다. 특히 '아이스 하우스 캐논 트레
일' 을 즐겨 찾았고, 발디 정상에도 여러 차례 올랐
었다.

마운틴 발디는 한국의 산들처럼 산세가 험준하지는
않으나 폭풍이나 눈보라로 인해 길을 잃거나 발을 헛
디터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. 지난 2017년 4월에
도 한 한인 유명 산악인이 등반 중 추락사하는 사고
가 났던 곳이다. 그 산악인은 실종 4일 만에 시신으로
발견돼 한인사회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. 산
악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. 발디
에서 위험에 직면했던 경험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.

15년 전, 친구 둘과 데빌스 백본 트레일(Devil's
Backbone Trail)을 오르다가 돌아온 적이 있다. 스키
장까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산등성을 조금 올라
이 악마의 등뼈(데빌스 백본)에 도착했다. 사람을
허공으로 날려버릴 기세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, 등
산로는 눈에 덮여 있어 자칫하면 헛발을 디터 바람으
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. 한 친구는 계속 더 갈
것을 고집했고 나는 위험하니 그만 돌아가자고 주장
했다. 그러나 친구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앞으로

나아갔다. 다른 친구와 나는 돌아서서 스키장 쪽으로
하산하기 시작했다. 그제야 오르기를 그만 두고 친구
도 따라 왔던 적이 있다. 그때 만일 우리가 계속 올랐
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 모를 일이다.

또 다른 경험은 그 후 다른 친구와 둘이 스키 허트 트레
일(Ski Hut Trail)로 겨울 발디 정상에 올랐을 때였다.
등산로에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평소보다 몇 배나 힘
들게 산 정상에 도착하니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
시작했다.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내리는 눈에 더해 이미
쌓여 있던 눈까지 휘날려 한치 앞도 보기 어려웠고 동
서남북도 구분하기 힘들었다.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하
산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우왕좌왕하다가 친구가 겨
우 길을 찾아 간신히 산을 내려올 수가 있었다.

겨울산행은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변화가 심
하기 때문에 안전 수칙에 입각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
비가 필요하다. 해발 100m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
섭씨 0.6도씩 낮아지며, 초속 1m의 바람이 불면 체감
온도는 2도씩 낮아져 방한·방풍 처리가 우수한 파커
를 준비해야 한다. 아울러 보온성 및 방수성이 좋은
등산화와 끈끈한 눈길에 대비해 아이젠을 준비해야
한다. 특히 날씨 변화가 예상되면 주저하지 말고 하산
해야 한다.

경험이 풍부한 리더를 포함해 최소한 3명 이상 동행
하고, 길을 잃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고 구
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
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다. 그
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해 움직여야 한다. 이런 이
유 때문에 가급적 겨울철 산행은 눈이 덮인 산을 피
하는 것이 좋다.

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지난 수요일(1/4) 오전에 마운
틴 발디로 향했다. 30분 정도 걸여 샌안토니오 폭포까
지 갔다. 계속 내리던 비가 내가 머물던 시간 동안 잠
시 그쳤고, 바람도 불지 않았다. 오랜만에 찾은 발디
는 변함없이 반겨주었다. 차가운 바람을 가슴 속 깊
이 들이마시고 서서히 내뿜으며 1월의 발디를 온몸으
로 느꼈다. 쉽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를 보면서
2023년 새해의 태평과 만복을 빌었다.

산을 내려와 프리웨이에 들어서자 다시 빗줄기가 차
창을 두들기기 시작했다.

chahn@townnewsusa.com

타운뉴스



제1454호 목차

타운뉴스 칼럼	11
커뮤니티 소식	13,15
나는야 1.5세 아줌마	16
법률	19
여행	21
세상에 이런 일이	23
전문인 칼럼	24,25,36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	25
숨은그림 찾기,답/날말 퀴즈,답	26/47,26/50
건강	33,36
깔깔	34
부동산/경제	35
한인업소 안내지도	40,42,52,54,58
요리	43
그림여행	41
연예	45,47
종교	46
안내광고	48,49
Domestic	50
여성	53

기주장익시

매장·화장·묘지주선·이장·장례보험등

- 넓은 주차장 • 교통 편리 (LA, OC-20분)
-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.

24시간 대표: 정영목 목사
9830 Lakewood Blvd., Downey, CA 90240
TEL (562)622-9393

OOH! PUPPY

Grooming

15329 E. Imperial Hwy. La Mirada, CA 90638 **562.947.4530**

Keon-Jung Kim Dental Corp.

IMPLANT, COSMETIC, ORTHODONTIC & LASER DENTISTRY ORAL SURGERY

www.timkimdental.com **터스틴**

37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5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

Our clinic is **DISINFECTED** and **SAFE to VISIT**

<p>일반·미용치과 전문</p> <p>Maria Capiral, DDS William Wang, DDS Nguyen Diemphi, DDS</p>	<p>교정치과 전문</p> <p>Jin Kim, DDS,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(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)</p>	<p>임플란트/구강외과 전문</p> <p>Timothy Kim, DDS, MS, Ph.D</p> <p>뼈가 부족한 분에서도 자가혈에서 채취한 PRP와 CGF를 이용한 뼈이식과 임플란트 수술 가능</p>
--	--	---

▪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
▪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
▪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·무출혈·무통 잇몸치료

Address 2492 Walnut Ave. #200, Tustin, CA 92780
tel. 714-760-4988 949-679-6000
(San Diego) 760-757-9876 760-479-9876

김건중 종합치과

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

KEON-JUNG 'TIMOTHY' KIM
구강외과/치아이식 수술전문 ORAL SURGERY
D.D.S., M.S.D., PH.D.

-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
-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
- 대한 구강악안면 상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
-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
-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
-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, 치아이식과 임상과장
- 미 치아이식학회 (AAID, AO)회원
- ADA, CDA, OODS, KADA 회원